JFMSE, 28(1), pp. 22~33, 2016.
수산해양교육연구, 제28권 제1호, 통권79호, 2016.
www.ksfme.or.kr
http://dx.doi.org/10.13000/JFMSE.2016.28.1.22

신노년층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재용 · 강신범†
(한국해양대학교)

Effect Factors on Subjective Well-being of the New-elderly People

Jae-Yong JANG · Shin-Beum KANG†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friendship among the elderly, particularly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functions of friendship,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friendship, and subjective well-being. Written questionnaires completed by 244 the new-elderly(95men, mean age 60.02 years/ 149women, mean 62.04 years) were analyzed. As a result, the main findings of our study were:

First, Among men, the duration of friendship was longer than among women. The most common initial acquaintance among men were co-workers, followed by schoolmates and old playmates, while friends made through leisure and volunteer activities or in the neighborhood were more common for women.

Second, Factor analysis revealed the following two factors: 'trust and support', and 'companionship'. Among both men and women,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friendship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and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level of 'trust and support' influenced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friendship. And expand the scale, because the future looked at the gender gap in the center is considered that there is a need for comparative studies specific age groups.

Key words : New-elderly, Well-being, Friendship, Leisure, Activity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류는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일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다.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은 인간 수명의 연장을 가져왔고,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aging society) 진입한 이후 급격한 속도로 초고령 사회(post-aged society)로 나아가고 있으며,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3). 또한 기대 수명 '100세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여가와 문화 활동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는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한 인식의 확대로, 개인의 여가 향유능력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사회적 관심으로 볼 수 있다(Yu & Im & Lee et al, 2009). 이제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 100세 시대가 예고됨에 따라 일 중심적이었던 80세 시대의 패러다임이 생산적인 여가문화중심의 100세 시대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가고 있고, 노인기의 생애주기 또한 새롭

† Corresponding author : 051-410-4791, kangsb@kmou.ac.kr

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Moon & An, 2013).

조선일보는 2013년 12월 기획시리즈 기사로서 우리 사회의 늘어난 신세대로서의 노년층을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신노년', '신중년'이라는 용어의 사용과 함께 이들에게 '新인류'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다(Chosun, 2013. 12). 주목받는 2000년대 신세대 노년층은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던 이전의 노인 세대와는 다르다. 신노년은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봉사를 통한 품위(Noble)를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삶의 즐거움을 찾고(Enjoying), 더 일하고 싶어 하는(Working) 세대다. 신세대가 연령으로 구분되는 젊은 신인류라면, 신노년은 문화·사회적으로 차별화되고 이전의 노인 세대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다른 신인류인 셈이다. 조기은퇴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특징지어지는 현대 노년의 삶은 과거에 비해 매우 다른 양상을 띤다. 700만 명이 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의 시기를 맞고 있고, 건강하고 경제력 있는 노인인구의 증가 현상은 사회전반에 새로운 노년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이렇듯 자립적이고 적극적인 노년의 삶을 구가하려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최근 우리사회는 '신노년문화'라고 칭한다(Jang & choi, 1996).

미국 시카고대학의 저명한 심리학 교수인 버니스 뉴가튼(Bernice Neugarten)은 '에이징 파워(Aging Power)'라는 책에서 55세 정년을 기점으로 75세까지를 영 올드(Young Old)로 구분하였다. 그의 저서에 나타난 젊고 건강한 신노년 또는 젊은 고령자라는 뜻을 가진 영 올드(YO)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성공적인 제 2의 삶을 위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의미 있는 여가생활을 통하여 충만한 삶을 이루어 가고자 한다. 어쩔 수 없는 잉여인생이 아닌 인생의 주인공으로 여유와 평안, 행복감을 맛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가치 있는 여가시간을 추구한다. 세계 최장수 국가인 일본에서는 이 시기의 세대들을 '액티브 시니어'로 구분하기도 한다. 현재의 나이에 0.7을 곱하면 그 동안 우리에게 익숙한 인생의 나이가 된다는 '0.7곱하기 인생'이라는 나이 계산법도 등장할 만큼 수명의 연장에 대한 인식이 보다 실제적이다. 예를 들어 현재 50세인 사람은 과거의 35세인 사람과 맞먹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함께 최근 국제사회서는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들 신노년집단을 '은퇴 소비집단', '뉴 시니어', '프리 시니어' 등으로 칭하며 이들의 인구규모와 소득수준, 소비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한국사회에서도 이들의 보다 질 높은 여가활동 및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시장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신노년문화를 이끌어 갈 베이이붐 세대의 학력을 윗세대와 비교해보면 고등교육의 기회 및 계층 상승의 기회를 전 세대보다 많이 누렸으며, 현재 중산층의 핵심을 이루는 구성원들이라 할 수 있다(Park, 2010; Cho, 2009). 이들은 자기표현과 사회참여의 욕구가 강하고, 풍요의 시대를 거치면서 개성 있는 삶을 살아왔다. 과거처럼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복지개념의 노인상이 아니라 적절한 건강관리를 통해 독립성을 유지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 학습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며, 나아가 의미 있는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노년기의 자아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사실 신노년문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까지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인식되어 온 수동적이고 고통스러운 노년기가 아니라 생산적이고 활기차며 보다 긍정적인 모습을 추구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어른으로서 자기주장이 있고, 아래 세대에게 삶의 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며, 경제적 능력이 있어 자신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 노인들에 의해 향유되는 문화현상인 것이다(yu et al,, 2009). 이러한 신노년문화는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다. 취미활동, 평생교육, 사회봉사는 물론이고 공연, 여행, 스포츠, 시민활동, 권익운동 등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Kim & Chung, 2014; Byeon & Kim & Hyeon, 2011). 이상의 문제의식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다가온 신노년층에 대한 연구와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신노년층을 대상으로 친구관계 기능과 친구관계 만족도,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이러한 결과들이 초고령화 사회에 대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내 거주자 중 50세 이상의 신노년층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자기기입식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264명으로부터 응답을 얻었다(회수율 88.0%). 조사는 2013년 12월 한달 간 실시하였다.

2. 조사내용

이번 조사에 사용된 신노년층의 친구관계에 대한 조사항목을 만들기 위하여 본 조사 6개월 전에 동일연령대 15명(남성 7명, 여성 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 항목을 최종 작성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기본속성

연령, 성별, 근로(취업)상황, 가족 구성, 현재의 생활 형편에 관하여 물어보았다. 근로(취업)상황에 대해서는 현재의 근로(취업) 유무를 물어보고, 현재 근로(취업)상황에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과거의 근로(취업)상황으로서 계속해서 근로(취업)상황을 이어왔다,한 때취업 상황에서 벗어났으나 재취업,계속 전업주부(무직)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가족 구성에 관해서는 배우자와 자녀의 유무를 확인했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확인하였다. 또한 동거자의 유무와 함께 동거자가 있는 경우 그 관계를 배우자, 부, 모, 장인, 장모,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사위, 기타 등에서 해당하는 모든 것을 적도록 하였다. 현재의 생활 형편에 관해서는 힘들다에서 부터여유가 있다 까지 5단계로 회답을 얻었다.

(2) 현재의 건강상태와 평소의 동작능력

현재의 건강 상태에 관해서는「지극히 좋지 않다」에서부터「대단히 좋다」까지의 5단계 척도법으로 응답토록 하였으며 이 항목은 특히 일본의 古谷野·柴田·中里·須賀·須山(1987)가 제작·사용한 ADL(Activity of daily living)을 활용하였다. ADL은 13항목으로 구성되어 「예」(1점)와「아니요」(0점) 두 가지로 응답토록 하고 이들의 합계점수(ADL점수)를 산출하게 되는데 만점은 13점이 되고 득점이 높을수록 생활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은 Lawton(1975)의 개정판 PGCMS(The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를 사용하였다. 개정판 PGCMS는 17개의 질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질문의 회답은 두 가지로써 긍정적 회답은 1점, 부정적 회답은 0점이 부여되어 합계점(주관적 행복감 득점)을 산출하게 되는데 최고 득점은 17점으로서 득점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친구관계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친구(벗)를 한사람 뽑아서 그 친구의 연령, 성별, 교제기간, 알게 된 동기, 교제 빈도, 통화 빈도, 메일 빈도, 편지 쓰는 빈도, 대화 내용 등에 대해 각각 물어 보았다. 또한 현재의 친구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1점)」에서부터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10점)」까지 10단계 평정법으로 응답을 얻었다.

(5) 친구관계가 지니고 있는 기능

친구관계가 지니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예비조사에서 얻은 결과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교류활동」, 「정서적 지원」, 「상호이해」등 3가지 기능을 설정하여 항목을 작성하였다. 사용한 항목은 「가벼운 대화를 즐긴다」, 「취미나 오락 활동을 함께 한다」, 「걱정이나 근심거리를 서로 나눈다」, 「상대방의 능력을 인정해준다」, 「공통적인 체험거리를 서로 나눈다」,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서로 닮았다」, 「서로를 이해해준다」, 「정신적으로 의지한다」, 「안도감을 얻을 수 있다」, 「에너지가 솟아오른다」, 「가벼운 일거리를 서로 부탁하고 부탁받는다 」, 「앞으로도 계속 사귀어 갈 것이다」 등 12가지 항목에 「예」(3점), 「어느 쪽도 아니다」(2점), 「아니요」(1점) 3가지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자료처리

회수된 설문지 264명 가운데 응답에 문제가 있는 20명을 제외한 244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통계처리는 SPSS Ver. 20.0과 AMOS Ver.20.0을 이용하였다.

Ⅲ.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61.03세(SD=6.05)였으며 남성은 60.02(SD=6.03)세, 여성은 62.04(SD=6.11)세로 나타났는데, 평균연령에 있어서 남녀의 유의한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Table 1>은 연구대상자의 근로(취업여부)상황과 가족, 거주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현재 근로상태에 있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76명(31.1%), 그 가운데 남성은 39명(41.1%), 여성은 37명(24.8%)으로 나타났다. 노령자의 근로상태 여부에 있어서는 남녀 성별로 통계적 유의차가 드러나($\chi 2=8.43$, $p<.01$),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근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는 취업중에 있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과거의 취업상황에 대해 살펴 보면 남성의 경우 「계속해서 취업중」이 42명(84.0%)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전업주부」가 53명(49.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계속된 취업」이 34명(31.5%), 재취업 18명(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171명(70.4%)으로서, 남성의 경우 83명(87.4%), 여성의 경우 88명(59.1%)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남녀 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chi^2=26.45$, $p<.001$) 남성이 여성에 비해 배우자가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220명(90.2%)인데 성별로는 남성이 87명(91.6%), 여성이 133명(89.3%)로 각각 나타났다. 거주형태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혼자서」가 42명(17.2%), 「부부만」이 96명(39.3%), 「배우자와 자녀 함께」가 45명(18.4%), 「자녀와 함께」가 36명(14.8%)로 각각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부부만」이 46명(48.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가 24명(25.3%), 「자녀와 함께」가 8명(8.4%), 「혼자서」가 6명(6.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부부만」이 50명(33.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혼자서」가 36명(24.2%), 「자녀와 함께」가 28명(18.8%),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가 21명(14.1%)의 순으로 각각 나타나 남녀 성별로 통계적 유의차가 드러났는데($\chi^2=23.25$, $p<.001$), 남성은 여성에 비해 「혼자서」사는 경우가 적었고 「부부만」과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는데 전체적으로는 133명(55.2%), 남성은43명(46.7%), 여성은 90명(60.4%)로 나타났다. 「보통」「좋다」」「대단히 좋다」 등 긍정적 응답자는 모두 214명(88.80%), 남성 81명(88.04%), 여성 133명(89.26%)로 각각 나타났다. ADL 득점의 전체 평균은 11.96(SD=1.81), 남성

<Table 1> The subject of study's working conditions, family relations, residential types

		Male and female(n=244)	Male(n=95)	Female(n=149)	χ2(df)
		Persons (%)	Persons(%)	Persons(%)	
Working conditions	Currently employed	76(31.1)	39(41.1)**	37(24.8)**	8.54(1)**
	Currently unemployed	158(64.8)	50(52.6)	108(72.5)	
	No response	10(4.1)	6(6.3)	4(2.7)	
	Pastemployment situation				
	Continuously employed	76(48.1)	42(84.0)	34(31.5)	
	Re-employed	21(13.3)	3(6.0)	18(16.7)	
	Full-time homemaker (Unemployed)	53(33.5)	0(0.0)	53(49.1)	
	No response	8(5.1)	5(10.0)	3(2.8)	
Family relationships	Marital status Married	171(71.0)	83(87.4)**	88(59.1)**	26.45(1)***
	Unmarried	67(27.8)	8(8.4)	59(39.6)	
	No response	5(1.2)	3(3.2)	2(1.3)	
	Children	220(91.3)	87(91.6)	133(89.3)	
	No children	18(7.5)	4(4.2)	14(9.4)	
	No response	4(1.6)	2(2.1)	2(1.3)	
Residence type	Alone	42(17.2)	6(6.3)**	36(24.2)**	23.25(3)***
	Husband and wife only	96(39.3)	46(48.4)**	50(33.6)**	
	Together with spouse and children	45(18.4)	24(25.3)*	21(14.1)*	
	Living with children	36(14.8)	8(8.4)*	28(18.8)*	
	Etc.	12(4.9)	5(5.3)	7(4.7)	
	No response	13(5.3)	6(6.3)	7(4.7)	

* p<.05 ** p<.01 *** p<.001

10.89(SD=2.99), 여성 12.33(SD= 1.45)로 나타나, 이 ADL 득점은 비교적 높은 경향을 드러내었다. 성별 평균치의 차의 검정을 실시한 결과, ADL 득점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02, p<.01).

2.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 득점의 전체 평균은 12.44 (SD=3.63), 남성 12.98(SD=3.72),여성 12.54 (SD=3.52)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통계적 유의차는 드러나지 않았다(t=1.07, n.s.).

3. 친구관계의 특징

친구의 성별은 남녀 모두 90% 이상이 동성 친구라고 응답하고 있었다(남성 93.2%, 여성 96.4%). 친구의 평균 연령은 59.40세(SD=7.75), 남성 59.85세(SD=7.62), 여성 58.95세(SD=7.83)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통계적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다 (t=.70, n.s.). 또한 연구 대상자의 연령과 친구의 연령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바 남녀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남 r=.83. p<.01, 여 r=.68, p<.01).

친구와의 교제 기간은 평균 20.64년이며, 남성 26.78년(SD=7.53), 여성 14.5년(SD=7.51)로 나타났다. 성별 교제기간의 평균치의 차이 검정을 실시

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긴 것으로 드러났다(t=3.92, p<.001).

<Table 2>는 친구와 알고 지내게 된 이유를 나타낸 것이다. 남성의 경우에는「직장 또는 업무」

때문이 41.6%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취미나 학습」때문이 가장 많았다. 카테고리의 통합을 위해 「어릴 때부터」와 「학교」를 「어려서부터」로, 「직장일로」를 「일 때문에」로, 「자녀 양육」과 「이웃」을 「지연」으「취미와 학습」, 「봉사활동」을 「취미활동」으로 각각 정리하였다(<Table 3>).

그 결과, 지금의 친구와 서로 알게 된 동기나 이유가 남성의 경우에는 「직장생활을 중심으로 한 일 때문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어려서부터」, 「취미활동」, 「지연」의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여성의 경우에는 「취미활동」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지연」, 「어려서부터」, 「일 때문에」의 순으로 나타났다. 친구와 알게 된 이유나 동기를 성별로 살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드러났다(χ^2=28.37, p<.001).

<Table 4>는 친구와의 교류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직접 만남의 빈도」, 「전화 빈도」, 「메일 빈도」, 「서신 빈도」등 각각의 교류빈도에 대해 「Almost none」을 「Group without interaction 」, 「연간 1~3회」,「2, 3개월에 한 번」을 「낮은 교류집단」, 「월 1~3회」와 「More than 1 time a week 」을 「높은 교류집단」으로 분류하여,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 「직접 만남의 빈도」는 남녀 모두 과반수가 「높은 교류집단」이었으나 「메일빈도」와 「서신빈도」에서는 「Group without interaction 」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각 교류수단에 대해 성별로 살펴 본 결과, 「전화빈도」와 「메일빈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전화빈도의 「높은 교류집단」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메일빈도의 「낮은 교류집단」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전화빈도 χ^2(2)=26.15, p<.001, 메일빈도 χ^2(2)=11.56, p<.01, 서신빈도 χ^2(2)=0.99, n.s.).

<Table 2> Reasons or Motivations of becoming intimated with friends

	Male and female(n=206)	Male(n=77)	Female(n=129)	Category Integrated
	Persons(%)	Persons(%)	Persons(%)	
From an early age	17(9.1)	7(9.1)	10(7.8)	From an early age
School friends	39(18.9)	21(27.3)	18(14.0)	
With the work	56(27.2)	32(41.6)	24(18.6)	With the work
Child-rearing	11(5.3)	0(0.0)	11(8.5)	Delayed
Neighborhood	23(11.1)	5(6.5)	18(14.0)	
Hobby, Learning	51(24.8)	10(13.0)	41(31.8)	Hobby activity
Volunteer activities	9(4.4)	2(2.6)	7(5.4)	

<Table 3> Reasons or Motivations of becoming intimated with friends(after categories intergration)

	Male and female((n=206)	Male(n=77)	Female(n=129)	χ2(df)
	Persons(%)	Persons(%)	Persons(%)	
From an early age	56(27.2)	28(36.4)*	28(21.7)*	28.37(3)***
With the work	56(27.2)	32(41.6)**	24(18.6)**	
Delayed	34(16.5)	5(6.5)**	29(22.5)**	
Hobby activity	60(29.1)	12(15.6)**	48(37.2)**	

* p<.05 ** p<.01 *** p<.001

<Table 4> Exchange frequency with friends

			Male and female(n=244)	Male(n=95)	Female (n=149)	χ2(df)
			Persons(%)	Persons(%)	Persons(%)	
Contact in person	Almost none	Group without interaction	7(2.9)	4(4.3)	3(2.0)	
	1-3 times per year Once in February and March	Group with low-leveled interaction	71(29.5)	33(35.9)	38(25.5)	
	1-3 times a month More than 1 time a week	Group with high-leveled interaction	163(67.6)	55(59.8)	108(72.5)	
Telephone frequency	Almost none	Group without interaction	35(14.5)	19(20.7)*	16(10.7)*	26.15(2)***
	1-3 times per year Once in February and March	Group with low-leveled interaction	60(24.9)	36(39.1)**	24(16.1)**	
	1-3 times a month More than 1 time a week	Group with high-leveled interaction	146(60.6)	37(40.2)**	109(73.2)**	
E-mail frequency	Almost none	Group without interaction	172(71.8)	62(67.4)	110(73.8)	11.56(2)**
	1-3 times per year Once in February and March	Group with low-leveled interaction	56(23.2)	3(14.1)**	4(2.7)**	
	1-3 times a month More than 1 time a week	Group with high-leveled interaction	12(5.0)	17(18.5)	35(23.5)	
Letter frequency	Almost none	Group without interaction	173(71.8)	68(73.9)	105(70.5)	.99(2)n.s.
	1-3 times per year Once in February and March	Group with low-leveled interaction	56(23.2)	21(22.8)	35(23.5)	
	1-3 times a month More than 1 time a week	Group with high-leveled interaction	12(5.0)	3(3.3)	9(6.0)	

* p<.05 ** p<.01 *** p<.001

친구와의 주된 대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 <Table 5>이다. 대화 내용 9항목에 대해 「한다」고 응답한 사람 수를 정리한 이 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는 「건강에 관한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82.2%).

성별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일상관련 내용」, 「가족 관련 내용」, 「사회정세」, 「과거의 경험」, 「미래에 관한 것」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사회정세」와 「과거경험」과 관련된 이야기가 유의하게 많았고, 여성의 경우 「일상관련」이야기와 「가족」, 「앞으로 닥치게 될 미래관련」이야기 등이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Major contents of conversation with friends(the number of respondents who answered 「yes」)

	Male and female(n=244)	Male(n=95)	Female(n=149)	χ2(df)
	Persons(%)	Persons(%)	Persons(%)	
Health-related	198(82.2)	71(77.2)	127(85.2)	2.52(1)
Daily life-related	181(75.1)	60(65.2)	123(82.6)	9.35(1)**
Hobby-related	169(70.1)	68(73.9)	101(67.8)	1.02(1)
Family-related	126(52.3)	36(39.1)	90(60.4)	10.32(1)**
Social conditions	116(48.1)	59(64.1)	58(38.9)	14.47(1)**
Past experiences	100(41.5)	46(50.0)	54(36.2)	4.44(1)**
Future-related	90(37.3)	26(28.3)	64(43.0)	5.25(1)**
Mistakes	88(36.5)	21(22.8)	67(45.0)	12.03(1)**
Business(work)-related	44(18.3)	18(19.6)	26(17.4)	0.71(1)

4. 친구관계가 지니고 있는 기능

친구 관계의 기능에 관한 12항목에 대한 인자분석을 실시하였다. 충분한 인자 부하량을 갖지 못한 1항목(걱정이나 근심을 털어놓을 수 있다)을제외한 11항목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인자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의 감퇴상황, 인자의 해석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2개의 인자구조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 <Table 6>이다.

제1인자는 상호이해나 안도감을 얻을 수 있다는 항목과 상호지원과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호이해·상호지원」(11항목, α=.84)으로 명명하였다. 제2인자는 취미나 오락, 가벼운 대화를 즐길 수 있다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활동의 공유나 커뮤니케이션 관련 내용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류활동」(2항목, α=.44) 으로 명명하였다. 각 인자에 들어 있는 항목의 평균치 산출을 통해 인자 득점을 얻었다(<Table 7>).「상호이해·상호지원」, 「교류활동」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5. 친구관계가 지니고 있는 기능과 친구관계 만족도,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

[Fig. 1]은 친구관계 기능의 2가지 인자 득점과 친구관계 만족도,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련에 대해 연구 모델을 설정, 남녀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모집단동시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그 결과, 모델의 적합도 지수는 GFI=.980, AGFI=.900, RMSEA=.079로 나타나 모델로서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배병렬, 2007).

모수간의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녀 합쳐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GFI=.986, AGFI=.932, RMSEA=.099로 나타나 일정한 수준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친구관계 기능 중 「상호이해·상호지원」에서 친구관계 만족도로의 파스계수와 친구관계 만족도에서 주관적 행복감으로의 파스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37, p<.001; .31, p<.001).

이 사실은 친구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고, 친구관계 중 「상호이해·상호지원」이 친구관계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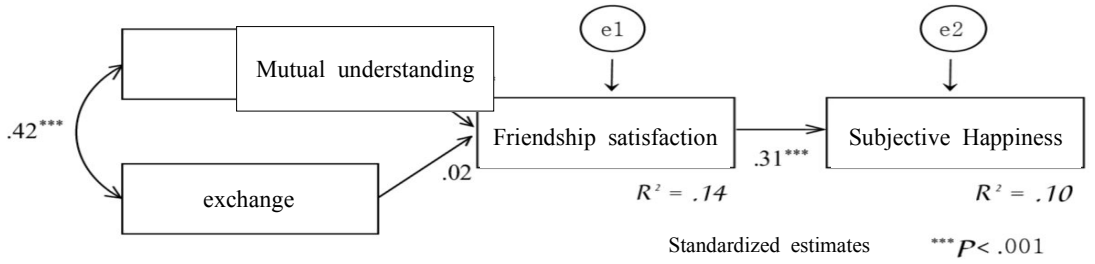
<Table 6> Factor analysis about function of relationship with friends

Functions of friendship	Factor 1 Mutual understanding and support	Factor 2 Interactions
To make mutual understanding possible	.80	-.21
To feel a sense of relief	.75	-.09
To be energetic	.65	.13
To think highly of abilities and efforts of each other	.62	.11
To obtain the mental support	.59	-.04
To share the common values and ways of thinking	.51	.11
To talk about the common experiences	.50	.14
To ask simple things done or to be asked to do simple things	.49	.21
To get along with him/her	.43	.01
To enjoy a hobby or pastime with him/her	-.06	.75
To enjoy a light conversation	-.01	.43

<Table 7> Factor score about function of relationship with friends

Factor	Male and female(n=244) Average value (SD)	Male(n=95) Average value (SD)	Female(n=149) Average value (SD)	t value
Mutual understanding and support	2.68(.43)	2.61(.44)	2.73(.41)	-2.13*
Interactions	2.77(.47)	2.67(.52)	2.83(.43)	-2.46*

* p<.05



[Fig. 1] The connection from function of relationship with friends to satisfaction of friendship to subjective happiness

Ⅳ. 논 의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생활자립도가 높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비교적 많았다. 현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남성이 87.4%, 여성이 59.1%였으며, 혼자서 사는 사람은 남성이 6.3%, 여성이 24.2%로 각각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감은 비슷한 척도를 사용한 일본의 선행연구(Wataru, 1982; Junko & Hiroshi, 1992)에

비해서도 비교적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노년층의 주관적 행복감은 건강과 경제력, 배우자의 유무와 깊은 관련이 있음이 밝혀져 있고 본 연구에서도 주관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난 것은 건강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되었다. 또한 생활 기능이 높고 경제상황이 양호한 것은 친구의 수와 타인과의 교류 여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Erika et al,2005; Masanori et al, 2000)에서도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지니고 있었다고 사료되었다.

2. 친구관계의 특징

남녀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년배와 동성을 친구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가 된 이유나 동기는 남성의 경우 직장이나 업무, 일 때문에, 여성의 경우 취미나 학습활동, 이웃간 등의 이유로 친구가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교제기간은 평균 20.64년이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26.78년, 여성 14.5년). 또한 남녀 모두 친구와의 교류는 빈번했으나 메일이나 서신의 왕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화 빈도는 여성이 좀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의 내용은 남녀 모두 건강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아 연령대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남녀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대화 내용으로는 남성은 사회정세나 과거의 경험이 비교적 많았으나 여성은 가족 관련 내용이나 앞으로의 일 등 생활과 밀착된 것들이 비교적 많았다. 일본의 경우 노인층이 가족 이외의 사람이나 친구와 알게 된 동기나 이유로서 남성은 일과 학연을, 여성은 취미활동이나 근린관계가 많다는 보고(Minoru, 2012; Naoko, 2004)가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도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교제년수와 대화 내용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는 알고 지내게 된 이유나 동기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Minoru, 2012)는 친구관계 형성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에 대해 라이프 코스의 성차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성인기 이후 일과 가사, 육아 등 다양한 역할 부담이 존재하는 관계로 라이프 스테이지(life stage)에 따른 역할 이행과 생활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찬구관계를 형성하는 과정도 다양한 반면에 그때그때 마다 생활환경에 맞춘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관계로 지속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사료된다. 한편 남성의 경우에는 한 직장이나 동일 업무의 근로환경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정년이나 퇴직까지는 라이프 스테이지에 따른 환경변화가 여성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이로 인해 남성의 경우에는 어린 시절부터의 친구나 학연에 의한 친구, 일을 통해 알게 된 친구가 많은데 비해 여성은 지연이나 취미, 학습 활동 등을 통해 알게 된 친구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3. 친구관계 기능

친구관계의 기능은 인자분석 결과, 2개의 인자구조로 나타났는데 상호이해와 상호지원과 관련된 기능과 대화나 여가 활동 동반 등 교류활동과 관련된 기능이다. 각 기능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본 연구자가 사전에 설정해 놓았던 「교류활동」과 「정서적·수단적 지원」, 「상호이해」 등 3가지 기능 가운데 「정서적·수단적 지원」과 「상호이해」에 관한 내용이 하나의 인자로 정리되는 결과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2가지 기능(상호이해와 상호지원, 교류활동)은 Connidis와 Davis가 말하는 「Confidants」와 「Companions」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사료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노년층에 대한 지원 기능은 주로 가족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지원의 힘이 배우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근거로 고찰해 보면 본 연구의 대상자 과반수가 배우자가 있으

며 특히 남성의 90% 이상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은 친구관계에 있어서 지원 기능을 상대적으로 떨어트리는데 기여하지 않았나 사료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친구가 정서적 지원에 있어서는 가족보다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의 「상호이해·상호지원」기능은 정서적 지원에 가까운 것이라고도 하겠다. 또한 두 기능 모두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점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오히려 사회적 네트워크가 더욱더 다양하다는 사실을 시사한 선행연구(Naoko, 2004)와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상호이해·상호지원」 기능은 친구와 가치관 및 사고 방식이 유사하다는 점을 자각하고 공통적 체험을 나누는 과정 등을 통해서 상호이해하는 기능이며 이러한 기능은 노년층에 있어서 보다 강하게 의식되는 친구관계 기능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Allan(1989)은 긴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친구관계는 「서로의 경험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개성을 인정함으로써 노년이 되어도 의미와 연속성을 제공하여 아이덴티티 감각을 유지시켜 주는 존재」라고 정의하고 있다.「상호이해·상호지원」기능은 노년층에 있어서 아이덴티티를 유지시키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친구관계 기능, 친구관계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련성

남녀 모두 친구관계에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남녀 모두 「상호이해·상호지원」이 높을수록 친구관계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상호이해·상호지원」기능은 친구와의 정서적 지원의 교환과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재확인하는 기능도 지니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 이와 같은 기능을 얻을 수 있는 친구관계일수록 그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높고, 아울러 그러한 친구관계를 구축하는 점이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다고 사료된다.

Ⅴ.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aging society) 진입한 이후 급격한 속도로 초고령 사회(post-aged society)로 나아가고 있으며,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기대 수명 '100세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여가와 문화 활동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한 인식의 확대와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신노년의 대두는 사회전반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신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의 경우에는 한 직장이나 동일 업무의 근로환경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정년이나 퇴직까지는 라이프 스테이지에 따른 환경변화가 여성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었다. 이로 인해 남성의 경우에는 어린 시절부터의 친구나 학연에 의한 친구, 일을 통해 알게 된 친구가 많은데 비해 여성은 지연이나 취미, 학습 활동 등을 통해 알게 된 친구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둘째, 친구관계의 기능은 인자분석 결과, 2개의 인자구조로 나타났는데 상호이해와 상호지원과 관련된 기능과 대화나 여가 활동 동반 등 교류활동과 관련된 기능이었다. 또한, 남녀 모두 친구관계에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각종 취미활동과 관련된 사람들이며 따라서 친구관계가 적극적이고 양호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겠다. 친구관계란 생활환경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 대상자의 특징을 전제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노년기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건강이나 생활환경의 변화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번에는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추후 규모를 확대시켜 연령대별 비교연구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친구관계의 특징이 개인차가 크다는 점을 전제로 친구관계의 변천이나 친구의 역할에 관해 양적 방법뿐만 아니라 질적인 연구방법에 의한 연구분석도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References

Allan,G.(1989). Friendship: Developing a Sociological Perspective. London: Harvester Wheatsheaf.

Bae, Byeongryeol(2007).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 principles and practice. Seoul: Chungrim Publishing.

Byeon, Luna & Kim, Yeongsook & Hyeon, Taeksoo(2011). A Comparative Study of Policies for the Social Participation of Baby-boomer Retirees in Korea and Japa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ho, Minsun(2009). Research On Methods to Improve Edition Design of Newspapers on New Silver.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at Sangmyung University.

Chosun Monthly (1998). Massive Explosion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Democratization, Olympic Games, and IMF. Seoul: Chosun Ilbo.

Erika, Kobayashi & Yoko, Sukihara & Taro, Hukaya & Hiroko, Akiyama et al(2005). The Effect of Spouse and Distance to Child on Structure and Function of Friend and Neighborhood Network in Seniors. Japanese journal of gerontology, 26, 438~450.

Jang, Inhyeop & Seongjae(1996). Welfare Theory for the Elderly.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Junko, Sukii & Hiroshi, Motomura(1992). A Study on Subjective Happiness of Seniors—Relation to Structural Factors of Family System—Study on Sociology of Family, 4. 53~65.

Kim, Yujin & Chung, Kayoun(2014). Understanding of Preparation for Later Life among Baby Boomers.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2).

Lawton, M.P.(1975). The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A Revision.Journal of Gerontology, 30. 85~89.

Masanori, Nishimura & Tomoaki, Ishibashi ·& Ukari, Yamada & Wataru, Koyano(2000). New Relationships in Old Age—Selection of Others as Subjects of「Association」,「Counseling」and「Trust」—. Japanese journal of gerontology, 22.367—374.

Minoru, Wada(2012). Gender differences in same-sex friendship among older men and women : The relation of actual friendship, expectant friendship, and the differences between both friendships to the subjective well-being. Japanese journal of gerontology, 34, 16~24.

Moon, Hyunju & An, Dongsoo (2013). The Effects of Middle Aged Group`s Leisure Perception on Leisure Sufficiency and Happiness. The Journal of Korean Recreation Pedagogy, 37(3).

Naoko, Maeda(2004). Gender in Friendship—Difference—From the Perspective of Life Course. Japanese journal of gerontology, 26, 320~329.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3). Population Structure of Korea.

Park, Seonhee(2010). A Study of the Effect of Preparation for Retirement on Life Quality: Focusing on the Baby Boomer Generation.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at Korea University.

Wataru, Koyano(1982). Co-dimension and Relevance among Moral Scale, Life Satisfaction Scale, and Happiness Scale. Japanese journal of gerontology, 4, 142~154.

Yu, Jaehak & Im, Younghee & Lee, Hansung et al(2009). A Prediction Model for the Life Satisfaction of Neo-Elderly using SVM. Journal of Korea Computer Congress, 36. 352~356.

- Received : 01 October, 2015
- Revised : 28 October, 2015
- Accepted : 17 November, 2015